



OC목사회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제40대 OC목사회 “하나되어 기쁨으로”

회장에 남상국 목사, 이사장에 이원준 목사 취임

오렌지카운티한인목사회(OC목사회) 제40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4일 오후 4시 30분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40대 임원은 △이사장 이원준 목사(남가주가스펠교회) △회장 남상국 목사(나트말씀교회) △총무 최다니엘 목사(슈마장로교회) △부회장 박희성 목사(One Hope Church), 김근수 목사(청신교회), 김학형 목사(맑은사랑교회), 이용훈 목사(이루리교회), 윤건상 목사(주님의마음교회), 유의상 목사(플러튼영락교회), 최정자 목사(은혜교회) △회계 윤에스터 목사(주님의마음교회) △감사 남승우(One Hope Church), 김광선 목사로 구성됐다.

신임회장 남상국 목사는 취임사에서 “자격 없는 저를 변화시키려고 회장직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는다”면서 “하나되어 연합해 기쁨으로 일하는 목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김익현 목사(One Hope Church)는 “작지만 함께 연합하여 여러 사업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목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목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김근수 목사의 인도로 문현봉 목사(자문위원)의 기도, 장혜숙 목사(OC여성목사회 회장)의 성경봉독, Heavenly Mission Chorale의 특별찬양, 이원준 목사의 설교, 이영훈 목사의 헌금기도, 윤에스터 목사의 특송, 김한길 목사(OC원로목사회 부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러졌다.

2부 취임식은 박희성 목사의 사회로 김익현 목사의 이임사, 남상국목사의 취임사, 김종대 장로(OC한인회 회장), 샘 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박영선 변호사(OC시민권자협회 회장)의 축사, 최양순

전도사의 특송, 김영찬 목사(호사랑선교회), 백태현 목사(베델한인교회 원로목사), 신명균 목사(커버넌트 신학대 부총장)의 권면, 최다니엘 목사의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3부 친교시간에는 남가주가스펠교회에서 준비한 만찬과 함께 김학형 목사의 사회로 회장단과 임원 소개 등의 교제가 이어졌다.

한편, OC목사회는 내달 2월에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원로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를 열 계획이며 금번 회기부터 감사패와 공로패 등을 주고 받는 것을 일절 없애 한인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플러 코리안 센터 2월 26일 개원

플러신학교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코리안 센터를 공식 개원한다. 플러는 그동안 신학대학원 내에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선교대학원 내에 한국학부가 존재해 왔다. 서로 다른 대학원에서 진행되던 두 종류의 한국어 과정은 이제 코리안

센터 안에서 함께 진행되며 코리안 센터 측은 “두 학과를 연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자원을 지원하는 사역을 맡는다”고 밝혔다. 코리안 센터의 원장은 김창환 교수가 임명됐다.



남가주밀알이 올해도 어김 없이 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을 수여했다.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88명에게 13만 6,800달러 전달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및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이 1월 15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열렸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이사 겸 행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되어 ‘밀알 이야기’ 영상 상영과 전용규 행사 부위원장의 기도, 미주밀알선교단 이사장 김영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영길 목사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갈6:2)”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알 장학금을 정성껏 마련해 매년 수많은 장애인 학생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선한 행위다. 장학생들도 큰 믿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나누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됐다. 이종열 장학위원장과 김영길 목사, 이영선 미주밀알 부이사장, 이정수 행사위원장, 전용규 행사 부위원장, 노상일 남가주밀알 이사 그리고 이은철 UMC 원로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 장애인 장학생 14명과 근로복지생 4명, 꿈

나무 장학생 38명, 한국 장학생 10명, 제3국 및 북한 장학생 10명, 장애인 선교 사역자 육성 장학금 10명, 긴급 지원 대상 추가 기금 2명 등 총 88명에게 13만 6,800달러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로써 밀알 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23만 3,800달러에 이르게 됐다.

장학금 수여 후 장학생 데이빗 정 학생의 특송에 이어 알렉스 류 사랑의교실 디렉터의 사회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이 수여됐다. 지난 1년 동안 사랑의교실, 사랑의캠프, 예배모임 등 남가주밀알선교단의 각종 사역 현장에서 성실히 봉사한 자원봉사 학생들 중 103명을 선정해 대통령 봉사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였고, 특히 연방하원의원 에드 로이스와 앨런 로렌달이 수여하는 의회 봉사 인증서도 전달하였다.

모든 행사는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감사의 말씀과 김영길 목사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이종희 단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88명이 장학금을 받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장애우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봉사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권태일 목사
 월드쉐어 설립자

강태광
 월드쉐어 USA 대표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T.(323)578-7933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목회자들. (왼쪽부터) 송병주 목사, 김선의 목사, 권태산 목사, 이상명 총장, 민종기 목사



박영집 신임단장이 이영수 전임단장으로부터 단기를 전달 받았다.

이민교회에서도 “명성교회 세습 반대”

성명서 발표하고 결정 철회와 재발 방지 촉구

최근 발생한 한국 명성교회 담임 목사 후임 문제에 대해 해외 동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명성교회의 결정 철회와 명성교회가 속한 노회 및 총회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성명은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이민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민교회 목회자와 교인 일동’이 발표했다. 성명 참여자는 총 488명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등 다양했으며 미주 지역 목회자 가운데에는 선한침지교회 송병주 목사, 시카고한인교회 서창권 목사, 중현선교회 민종기 목사, 토론토밀알교회 노승환 목사, 서부장교회 김선의 목사,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나성한미교회 신용환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안성복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등 100여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성명은 송병주 목사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명성교회 후임자 결정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성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텍사스, 일리노이 등 미국 전역과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등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번 성명은 “우리는 조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죄인이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현실에 침묵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형제와 조국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느냐’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고 자라와 같이 마음을 모은다”고 했다.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은 윤리적, 사회적, 성경적, 그리고 선교적 차원의 어떤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명성교회 세습은 단순한 세습을 넘어 힘 있는 교회는 공동체와 법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명성교회 성도들은 개교회의 근시안적 유익을 넘어 시대적 소명의식 속에서 세습 상황을 직시하고 옳은 길을 향한 의사를 적극 개진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결단해 달라, 불법적 관행에 대해 노회와 총회가 교권과 금권에 굴복하여 대형교회의 불패론을 정당화시켜 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더 이상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침묵하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

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2018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인터네셔널 대학교 강당에서 발표됐으며 송병주 목사 외에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민종기 목사(중현선교회), 권태산 목사(올림픽장로교회), 박문규 대표(LA 기윤실), 김선의 목사(서부장교회)가 참석했다.

송병주 목사는 “세습은 한국교회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말하며 “(해당 교회는) 세습 반대가 일부의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상명 총장은 “세습은 기원후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제정한 교회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에 반하는 행동으로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목회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 중대형교회의 목회세습 반박문 95개조항’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한 민종기 목사는 “교회는 언약 집단지이지 혈연 집단이 아닌데 세습은 신라시대 골품제도처럼 교회 귀족, 목회 귀족이 생겨나게 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습하는 일은 예수님의 몸을 도적질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태산 목사는 “지금 시대는 유능한 사역자보다 성직자를 원하고 있

상처 치유하고 소망 주는 남가주장로성가단 신임단장 박영집 장로 취임

남가주장로성가단이 2018년 신년 감사예배와 함께 단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 행사에서 신임단장에 박영집 장로가 취임했다.

1월 11일 나성영락교회 친교실에서 드린 신년 감사예배에서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설교했다. 진 목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잠4:23)”란 제목의 설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쓸데없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께 선택되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장로성가단이 되라”고 축복했다.

이취임식 순서에서 이영수 전임단장은 “실수도 많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함께 애써 주신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고 박영집 신임단장은 “장로성가단이 상처를 치유하고 소망을 주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찬양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단장이 전임단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2018년 장로성가단은 박영집 신임단장과 함께 김용식 부단장, 문광규 총무, 노수길 서기, 이철 회계, 이종환 부회계 등이 섬기게 된다.

한편, 박영집 신임단장은 나성순복음교회 장로이며 법정 통역사 출신으로 한인전문통역사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도 역임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다”면서 “교회는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규 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선의 목사가 “믿음의 형제됨을 붙들고 돌이김과 개혁을 위해,” 송병주 목사가 “실망과 상처 입은 성도를 위해”를 대표 기도를 인도했다.

송병주 목사는 “저는 제가 속한 노회와 교단에 이번 일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달라 요청할 것”이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목사는 이번 성명과 참여자 명단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

판국과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 행사를 후원한 LA 기윤실은 이번 성명과는 별도로 지난 12월에 “교회 세습에 대한 LA 기윤실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전 교회가 자기의 모습을 성찰해야 할 때, 한국 교회에서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은 참담한 일”이라며 “미주 한인교회는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 황금 숭배, 교회 세습이라는 잘못된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 하우스 1월 25일(목) 7pm

New Covenant Academy
New Apostolic City

무료 앱 다운로드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명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심부름만 잘 하거라”

본지 주최, 청주중앙순복음 김상용 목사 초청 세미나

7명과 함께 조가집에서 안수집사가 개척한 교회가 재적인원 3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너는 심부름만 잘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목사의 목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지난 1월 15일 본지 주최, 종교개혁기념사업회 미주본부 주관으로 열린 김상용 목사 초청 영성 세미나에서 김 목사는 자신의 40년 목회를 간증했다. 김 목사는 “제가 여러 목사님 앞에서 무슨 강의를 하겠는가? 그저 제 목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1973년 초가로 된 주택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안수집사였다. “아들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는 어머니를 향해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니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했던 그는 결국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회를 하게 됐다. 일단 교회는 개척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 그는 “남들보다 못 배우고 아는 것이 없으니 성경 읽고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 외엔 없었다”고 회고했다.

하루는 설교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모세를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애굽으로 가서 이



김상용 목사

스라엘을 구원 하라” 하시는데 모세는 “할 수 없다”며 필 필 뛰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잘 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 광경을 보고 김 목사는 “하나님! 저도 심부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때부터 김상용 목사의 심부름 목회가 시작됐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 밤새 기도하며 매달렸다. 하나님은 한 편의 설교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난 이제 끝장이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

새 성전을 건축한 후, 성도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봐도 더 성장은 불가능했다. 교회 옆은 공동묘지였다. 교회의 빈 자리들을 보며 ‘저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곧 죽을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며 낫는다”고 해서 자리를 일단 채웠다. 김 목사는 “그때는 나도 기도하면 낫다는 믿음이 없었다. 그냥 빈 자리 채우려고 오라고 한 것인데, 정말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들을 보노라면 무서워서 기도할 수조차 없었다”고 간증했다. 너무 무섭다 보니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으니 가슴에 불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신기한 것은 죽음을 선고받았던 그들이 두세 달이 지나면 낫는 것이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교회 옆 공동묘지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되면서 놀라운 성장이 이뤄졌다.

김상용 목사는 “제가 한 일이 없다. 주님께 물어 보면 언제나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목회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된다. 여러분의 힘은 이민목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김 목사의 강의를 앞서 1부 경건회가 진행됐다. 김영구 목사(남가주목사회 직전 회장)의 사회로 엄규서 목사(남가주목사회 전 회장)가 기도하고 최경일 목사가 성경 사도행전 20장 17-24절을 봉독했다. 이어 윤에스터 목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을 불렀으며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가 “주 예수께 받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조준 목사

박 목사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사명 때문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다.



김성식 목사와 이순희 목사

영성혁명으로 형통의 축복을 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2월 3일까지

영혼의 새 성령 컨퍼런스가 지난 1월 16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 30분 LA 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에서 열리고 있다. 이 컨퍼런스는 2월 3일까지 계속된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영성 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이며 강사는 한국 백송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다.

이번 집회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숙, 변화되는 것, 각종 중독과 정신질환,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찬양 치유 부흥사로 잘 알려진 이

순희 목사는 결혼 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며 복음 가수로 활동하면서 오산리기도원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등에서 찬양 사역을 한 바 있다.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서울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한국 백송교회 담임목사다. 또 영혼의 새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영성수련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LA 백송교회는 3251 W. 6th St. #B1 Los Angeles CA90020에 있으며 전화 424-375-0725로 문의하면 된다.

엘비 권 기자

이런 확신과 자부심, 긍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재 목사가 색소폰으로 “영광의 나라”를 연주했고 본지 이사장인 임덕순 장로가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

목사회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2부 세미나는 김엘리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이호우 목사가 폐회기도를, 김현택 목사가 식사기도를 했다. 이후 천교 시간은 안기정 목사가 진행했다. 김준형 기자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는 100여 명이 넘는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결을 할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9〉

시리아 난민들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 (3)

작년말 안디옥 시리아 난민교회 지도자 수양회에서 만난 두 형제를 소개하고 싶다. 형은 사업으로, 동생은 변호사로 시리아 내전 전까지는 매우 다복한 가정에서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내전이 발발하고 두 형제만 난민으로 나왔다. 많은 고생과 생사의 갈림길을 헤쳐나왔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들의 첫인상은 매우 총명해 보였고, 왠지 모를 평안함이 충만해 있었다. '저들이 난민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동안 내가 보아온 난민들과는 달랐다.

내가 얻은 결론은 단 한가지, 바로 믿음이었다. 그들은 터키에 이르러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 성경 속에서 고난 받는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다. 그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이다. 소망의 사명이었다.

난민들은 서구 여러 나라들 중 난민 수용 국가들에 난민 입국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나라로 난민 이민자가 되어 옮겨 간다. 그 형제들은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해 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제 캐나다에 가서 그들의 학문적, 사업적 지식과 경험으로 일신의 윤택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캐나다 입국 비자를 포기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들이 할 일은 아직도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여전히 모여드는 자국의 난민들 더 나아가 아랍권의 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난민들을 섬기다가 고국 시리아의 정국이 수습되고 문이 열리게 되면 그들과 같이 고국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 되었다. 이 소망 앞에 일어날 어떤 고난도 그들은 즐긴다.

캐나다에서의 달콤한 삶보다 그들은 고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 겪게 될 고난을 택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망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들의 꿈을 들었던 현장에 있던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기도 동역자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할렐루야!

필자는 그들 형제들을 더 깊이 소개하고 싶고 사진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참는다. 필자는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위대한 시리아 민족'을 알게 되었다. 그 민족이 이 고난을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을 믿는다.

시리아 난민도 부류가 있다. 유엔 캠프 안에서 보호 받다가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자들, 다른 나라로 망명자가 되어 사라질 자들, 굶주림과 헐벗음에 자존감을 잃어버린 자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이 있다. 그들이 시리아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세울 것을 믿으며 그 날까지 기도 하리라.



미주성결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미주성결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회

교단 산하 3개 지방회 교역자 가족 모여 2018년 시작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희창 목사)가 1월 14일 유니온교회(김신일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LA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 등 3개 지방회의 교역자와 가족들이 참석해 2018년을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예배는 부회장 주신 목사가 인도했으며 회장 김희창 목사가 신년인사를 전했다. LA동지방회장 안신기 목사가 기도하고,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이상복 목사가 "주님과 함께 하는 2018년"이란 설교를 전했다. 이어 LA지방회장 대행 김종호 목사와 남서부지방회장 최진호 목사가 기

도를 인도하고 부총회장 최경환 목사가 축도했다.

신년하례회에서는 교단 원로인 이기홍 목사가 덕담을 전했다. 이번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영 김 후보(전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가 인사하는 시간도 있었다. 식사는 유니온교회가 떡국을 준비했다.

● 행복설계사 강태광 목사 칼럼

가슴 뛰는 사랑의 삶을 위하여

한비야 씨는 원래 오지 탐험가였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다니며 모험을 즐기고 자신의 경험담을 책에 담아서 세상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전문가로, 오지 탐험가로 이미 알려진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구호단체 긴급 구호팀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에게 어느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 재미있는 세계 여행이나 계속 하시지 왜 힘든 긴급 구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비야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죠."

참으로 멋지고 근사한 말입니다. 그녀는 가슴 뛰는 일을 위해 재미나고 신나는 일을 버린 것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더 신나고 멋진 일을 위하여 여행의 재미, 탐험의 재미를 과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던 한비야 씨가 NGO 긴급 구호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된 만남이 있습니다. 케냐의 40대 안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안과 의사는 케냐에서 너무나 유명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예약 후 며칠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을 만큼 유명하고 바쁜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과 의사가 자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 USA 대표

신의 안과 병원을 정리하고 오지로 들어가 풍토병과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비야 씨가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유명한 의사이면서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위험한 곳에서 풍토병과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나요?" 그 질문에 의사는 잇몸을 드러내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맛아요! 제가 나이로비에서 의사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

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 더합니다. 한비야 씨는 이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사의 명예와 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지에서 고생하는 삶의 이유가 돈 버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함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의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돌보는 일이 가슴 뛰는 일이었다는 것이 도전이 됩니다.

가치있는 인생을 위하여 가슴 뛰는 일을 사모합니다. 필자는 가슴 뛰는 일을 위하여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고 NGO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삶에는 근사한 기쁨이 있습니다.



길거리 난민 전도 사역 모습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팜스프링스 ANC온누리교회 창립예배

초청의 글

주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팜스프링스 ANC온누리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팜스프링스 ANC온누리교회 성도일동 -



마원철 담임목사

팜스프링스 ANC온누리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6시(목~토)



김태형 목사

일시 : 2018년 1월 28일 오후 4시
설교 : 김태형 목사

■장소: 43435 Monterey Ave, Palm Desert, CA92260
■문의: T.(760)410-2829

말씀에 이끌리는 믿음

마태복음 21:28-3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비유를 곁한 본문의 내용은 대제사장들, 장로들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다가 무리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만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임을 밝히시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1. 말아들의 거짓된 불신앙

말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소이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이란, 구령(救靈)성교를 위한 영적 사역장, 즉 교회를 일컫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다른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을 하라는 지시였는데, 아버지께 가겠다고 즉답(即答)은 해놓고 가지 않았으니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모습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실질적 생태(生態)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지도한다면서도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거짓 신자, 죽은 심령임을 지적, 경계하라 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했고, 15절에서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으며, 16절~19절에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나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로 책망하셨고 23~24절에서는 “너희가 박하고 회향과 근체의 심입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려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했습니다. 29~33절에서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심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지적들이요, 애타는 책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짓 신앙으로 가장하는 것과 외식하는 것, 예수님 이름 위에 군림하거나 행세하려는 육체뿐인 오만 무례한 종교지도자들을 가장 싫어하심을 명심하고 영적인 성도로 거듭나서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부정과 불신이 너무나 만연해 가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이나 “화(禍)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지적하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죽은 신앙을 책망하실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로 비유된 세리와 창기들의 회개하고 구원 얻어 기뻐 뛰는 믿음생활,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에 젖어사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지도자들은 직분적 권위와 교만한 자세를 꺾을 줄 몰라 결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기회마저 놓치고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는 말씀을 붙들고 서둘러 겸손하게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시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애타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시 107:10~12)

2. 둘째 아들의 회심(回心)과 산 신앙

여기 둘째 아들이라 하심은 그 당시 멸시와 천대로 사람 대접 받지도 못하고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던 하급시민들로 본문에 명기된 세리들과 창기들같은 수준의 천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싫소이다 했지만 후에 누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회심을 통한 구원얻은 기쁨과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생명사역의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뢰와 기대 가운데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엔 자기 형편과 입장을 우선시하느라고 싫소이다 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즉시 거부하고 말았으나, 아버지의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회심하

고 아버지의 말씀에 이끌려 포도원으로 갔고 순종의 보상으로 자신이 살고 남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고의 세리장삭개요, 거리의 소경 거지 바디매요, 수가성의 창녀 등 죄값에 시달리던 수많은 밑바닥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오순절 이후 성령충만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이 전 세계로 뻗어 가던 중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먼저 믿었다는 분들의 언행이 본을 세우지 못한 판단으로 새신자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불행한 심령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는 신앙

마태복음 5:13~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묵사는 참 묵사다운 언행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도 제각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으로 언어 예절과 겸손히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사역을 감당

할 때 주님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성도라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게 되어 있고 인간 자기 입장보다 주님의 입장을 따라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희생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관용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18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찌다가 받아들여져 말쑥하게 붙잡히지도 이끌리지도 못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외식하는 거짓 신앙으로 심령이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둘째 아들을 본받아 서둘러 회심하여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거듭나며 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으로 전도에 힘쓰는 포도원의 생명사역 역군이 됩시다.

나부터 서둘러 구원 얻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 섭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Happy

해피여행 프로젝트

가족 & 친구

춘천에서 추억만들기

그 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 & 친구들과 함께 춘천에서
즐거운 추억만들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출발~ !!!

실버TV USA와 함께 리포터 체험 ②

1

친구와 추억 만들기
(4박 5일)
4.23(월)~4.28(금)

2

가족과 추억 만들기
(4박 5일)
4.30(월)~5.5(토)

추억만들기 내용

1. 시내투어 : 겨울연가 드라마 촬영지, 군함도 세트장
2. 춘천전통 풍물 5일장(영상기록 만들기 ~ 실버TV 리포터 체험)
3. 양구(DMZ)투어 or 봄나물 채취, 감자가루 만들기

* 경비: **\$1,599** (항공료 포함)

* 마감 : 2월 28일까지 (각각 선착순 10명)

주관 한인여행사(Hanin Travel), 실버 TV USA

문의 T.(213)387-5949

621 S. Virgil Ave. Suite 230, Los Angeles, CA 90005
email : hanintravel17@gmail.com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 혈 관 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 졸 증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웨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원	714.333.7866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토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임원진이 한인회를 방문해 한인회비를 전달했다.

애틀랜타교협,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 한인사회 발전에 뜻 모아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구 목사) 임원진이 지난 10일(수)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김일홍)를 방문해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김성구 교협 회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뜻 깊은 일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 한인사회가 모두 납부 캠페인에 관심 갖고 한인사회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일홍 한인회 회장은 "이번 납부를 첫 단추로 올 한 해도 한인회비 납부 캠페인을 힘차게 시작할 것이다. 교협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김 회장은 "그 동안 한인회관 후문쪽 도로가 파여 차량 진입이 불편했는데 견적이 6300달러가 나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회관 맞은편에 소재한 빅토리 월드교회에서 해당 공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밝혀 노크로스 한인회관 주차장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애틀랜타 한인회 회비는 1년에 한번 20불로 한인회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한인회는 'PPS 솔루션'사의 기증을 받아 회관 곳곳에 40여 개의 방범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곧 완료할 예정이다. **윤수영 기자**



2018년 타코마 교회연합회 및 목사회 신년하례회

타코마 교계 신년하례회 드려 김홍식 루마니아 선교사 초청해 함께 예배

타코마 지역 교회연합회와 목사회는 연합으로 지난 8일,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타코마 교회연합회와 목사회는 이날 신년하례회에 김홍식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선교 보고를 나누며 더욱 선교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했다.

김홍식 선교사는 예정하신 파송 선교사로 현재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이날 "지상명령(마태복음 28:18-20, 사도행전 16:1-10)"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를 겸해 설교했다. 그는 "유럽은 더 이상 찬란했던 종교개혁의 산물도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선교가 필요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던 곳이 무슬림이 득세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고 보고했다.

김 선교사는 "무슬림의 이민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민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무슬림 난민 정책이 유럽에서 이뤄지면서 유럽은 더욱 성경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맞게 됐다"며 "심지어 1부 4처를 허용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4명의 처 이외에 추가로 아내가 발견되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무슬림이 1처 이외의 아내에 대해선 독신으로 정부에 신고해 생계비와 복지혜택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유럽을 복음으로 재무장시켜서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낙담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비밀의 소명을 간직한 자라야 주님의 복음 전파의 진정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지금 폰으로 축복을 전하세요" 뉴저지온누리교회, 송정미 교수 콘서트 열어

뉴저지온누리교회(담담 목사 마크 최) 성도들은 10일 송정미 교수의 '축복송'을 가족과 친구에게 실황 중계했다. 송정미 교수는 콘서트 말미에 '축복송'을 부르며 콘서트에 참여한 이들에게 자신의 축복송을 실시간 영상통화로 가까운 이들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했고, 뉴저지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폰을 꺼내 들고 자신들에게 전화했다. 갑자기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은 지인들은 화면 속 송정미 교수가 부르는 실시간 '축복송'을 들었고 기쁨의 두 배가 됐다.

뉴저지온누리교회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 포트리 성전에서 송정미 교수 초청 콘서트를 열었다. 뉴저지온누리교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외부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신년부흥성회를 열었는데 10일은 특별히 송정미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송정미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토크쇼 형식의 진행으로 콘서트를 이끌어 갔다. 한 곡 한 곡 찬양을 부를 때마다 곡과 관련된 신앙적 에피소드와 여러 간증들을 전하며 은혜를 나눴다.

뉴저지온누리교회는 매해 신년이면 2주간 부흥성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 해는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심상현 목사(맨하탄인투교회), 송정미 교수 등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회를 진행했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유고 이민2세를 영입하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현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7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2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 - 오후 8:00
한인청년부 오후 1:30 오영미어회 오전 11:00 - 오후 8:0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부흥을 열거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박헌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김민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박은중 담임목사**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이얼린예배(스페인어)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9:3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교회주일학교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삶이었고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 선교와 전파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성경공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강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승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김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학교 오전 10:00 - 오후 1:00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iet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2: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절문(이)예배 오전 1:3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중/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주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Fax.310)787-7786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골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2222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절문(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1부)오전9:30
EM예배 (2부)오전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주일 1부 예배 오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1914 Pinado St., Northridge, CA 91326 588 Aliso Viejo,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5887 Tel. (9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 오후 7:30
장미안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ingivingchurch.com




위임예식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문안교회 담임 위임예식 제7대 이상학 담임목사 최기학 총회장 “하나님의 명품 교회 되라”

한국의 모(母)교회인 새문안교회가 14일 오후 5시 언더우드교육관 분당에서 제7대 이상학 담임목사(54)의 위임예식을 개최했다.

먼저 서정오 목사의 집례로 김명용 장신대 전 총장이 대표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가 위기 속에 있다”며 “한국의 어머니인 새문안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허락되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길, 그리고 물 붓듯 부어지는 은혜 아래 이상학 목사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최기학 예장 통합 총회장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손인웅 목사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말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행일치의 삶을 살 것, 생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목회할 것, 목회자와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춰 일을 진행할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권면했고, 김명준 목사는 “꼭 필요한 분이 꼭 필요한 곳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출발이 큰 축복이란 생각이다. 새문안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이상학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상학 목사는 새누리교회 설교 전담 목사, 베이 커뮤니티 교회 개척 및 초대 담임 목사, 미주 두레공동체 운동 본부장, 포항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섬겼으며, 현재 장로회신학대 조직신학 겸임교수와 교회교육현장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최기학 총회장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명품교회가 있다면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교회와 헬라인 중심이었던 안디옥교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머니인 새문안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서 안디옥교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디옥교회가 명품이라 증거 받은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올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며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나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듯, 우리도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윗과 골리앗을 언급하며 “인간 명품 중 최고의 명품(사울)이라 해도 하나님의 최약급 명품(다윗)에도 못 미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며 “누구로부터 조율되고 연주되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율되고 연주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명품 교회”라며 “하나님께서 담임목사에게 준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먼저 헌신하는 명품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은 “탄식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지금도 빛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새문안교회와 이수영 목사, 노회 관계자인 서정오 목사, 김명용 전 총장,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을 언급하며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갖춘 것은 포항제일교회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싸에 불과할 때 그 싸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물을 주며 키웠기 때문이다. 사랑을 다 못 주고 온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없으면 저는 없었다. 이 친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신학도 시작했고, 험난한 길을 택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맞다면 저를 따라와 줬다. 주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을 때는 매몰차게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해줬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제 친구”라며 아내인 박신향 사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 대한성공회 이경호 주교, 서교동교회 우영수 목사 등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전해졌다.

김신의 기자

엄기호 · 김노아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자격 전광훈 목사 탈락 “교단 문제와 신원조회서 미제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가 “엄기호·김노아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5시 접수된 후보등록 서류를 가지고 후보자적 심사를 진행했다”며 “등록 마감일까지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엄기호 목사, 전광훈 목사, 김노아 목사(등록순) 이상 3명이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의 후보 탈락에 대해 선관위 측은 “소속 교단인 예장 대신 총회가 현재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고, 선관위 제28-8차 회의(2018년 1월 3일)에서 결의된 바 ‘성직자로서

의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 등록시 첨부하기로 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전광훈 목사에게 후보 자격에 미달되었음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등록한 순서대로 심사하고, 엄기호 목사(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와 김노아 목사(예장 성서 총회)에게 후보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기총 선관위는 오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실무위원 연석회의를 갖기로 하고, 이날 대표회장 후보 기호 추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대웅 기자





9일 오후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의 대형 가정교회인 진덩탕이 중국 당국에 의해 폭파됐다.

중국의 교회 탄압 여전해 “대형 가정교회 폭파”

부지 인수 제안 거절한 목회자에게는 7년형

지난 9일 오후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浮山)현에서는 중국 당국에 의해 대형 가정교회 건물이 폭파되어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 언론 자유시보는 지난 7일부터 현지 경찰들이 푸산현 개신교 가정교회인 ‘진덩탕’(金燈堂)에 성도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중장비로 작업, 9일 오후에 폭약을 설치하여 건물을 폭파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진덩탕은 2004년 완공됐으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삼자교회 소속은 아니다.

12일 유튜브에 올라온 10초 분량의 영상에는 굉음과 함께 커다란 먼지구름이 피어오르고, 붉은 십자가가 달린 교회 철탑이 쓰러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이날 교회 철거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성도들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교회 폭파 과정에서 사전에 교회에 통지하거나 동의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폭파 당시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성도들과 주민의 접근과 활영을 막았다. 교회 철거 소식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엄포하기도 했다.

진덩탕은 9년 전인 2009년에도 중국 당국에 의해 철거될 뻔했으나 유네스코가 현장 사진을 찍고 관심을 보이자 철거가

보류됐다.

진덩탕의 양릉리(楊榮麗) 목사는 앞서 부지 개발가치를 높이 평가한 린펀시 정부의 교회 토지 인수 제안을 거절했고, 이 때문에 무장경찰이 건물을 포위하기도 했다. 양 목사 등은 이에 산시성 정부에 민원을 넣으려 갔으나 경찰에 구금됐다. 이에 더해 양 목사는 불법 농지점용과 교통질서 혼란 죄로 7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했고 2016년 10월 출소했다.

중국은 2월 1일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한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한다. 불법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시 최대 20만 위안(3,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인가도 취소될 수 있다.

한 중국 전문 사역단체는 “중국 당국의 첫 번째 목표는 중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라며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 정치의 첫 번째 목표요, 이를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특히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혜진 기자

北-中 국경 주민들 “자녀 새해 선물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 주민들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새해 선물은 탈북’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새해에 들어선 이후 국경 인근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주민들만 20여 명이 넘는다”며 “이미 강을 건너 탈북했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되돌아오는 주민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사법기관들이 주민들의 탈북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면서 “그러나 이번 탈북 사건들은 인민반을 통해 먼저 공개했는데 국경 수비가 철통 같으니 아예 압록강을 건널 엄두도 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짙다”고

진단했다.

또 7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강이 얼어붙으면서 걸어서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체제에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은 강을 건너 탈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들이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라는 것은 국경 지역주민들치고 모르는 이들이 없다”며 “젊은 세대들은 강을 건널 때 국경수비대에 뇌물로 줄 자금을 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아닌가?’라며 대놓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혜진 기자

미국 3만2천여 청년들, 하나님께 예배

패션 2018, 워싱턴 DC와 애틀랜타에서 개최

2018년 새해 첫 3일 동안 미국 워싱턴 DC와 애틀랜타의 3개 장소에서 열린 ‘패션 2018’(Passion, 이하 패션) 집회에 3만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운집해 하나님께 예배했다.

미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케이아 메리칸포스트’는 최근 이 집회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패션은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듣는 자리다. 올해는 3만2천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1만2천명은 표가 매진돼 온라인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의 주강사는 20년 전 ‘패션 운동’을 시작한 애틀랜타 패션시티교회 담임인 루이 기글리오 목사다. 기글리오 목사는 지

난 2013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기도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반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결국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 이 매체에 따르면 기글리오 목사는 과거 설교에서 “동성애는 다른 형태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선호도 아니다.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죄”라고 했었다.

또 이번 패션 집회에선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미식축구 선수였던 팀 티보 전 덴버 브랑코 쿼터백이 간증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월 8일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눈 아래 요한복음 3장 16절(John 3:16)을 붙이고 나와 화제가 됐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족 예배 :매일 4배주 일요일 오후 5:30분
대학생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베헤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알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우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아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재지되고 재지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새 사람을 인양 (엡4:24)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수요일기도회: 오후 7시 30분
2부 : 오전 9시 30분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3부 :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오전 6시
영아예배(ECA) :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 오후 1시 30분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27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i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새해 맞이 골드 멤버십

정수기 물병 Free

* \$290 월4회 개인 레슨
정회원 한달(무제한 볼사용)

웨스턴골프연습장
New Western Golf

무제한 연습볼!

*골프 멤버십 200볼 상당의 정수기 물병 Free

물병의 6가지 특징

1. 향산화
2. 풍부한 아연
3. 알카리 밸런스
4. 작은 물 분자 클러스터
5. 열소제거
6. 음이온

건강에 필요한 것 충족

좋은 물 마시는 습관을 위해, 파이물립!

- * Classy Style Bottle의 디자인
- * 클래식 스타일 캡은 복유림의 감성을 더해 심플하고 기품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 * 한 손에 들어오는 크리로 그림감 또한 뛰어납니다.
- * 가벼운 스텐레스 재질로 휴대하기 편리하며 등산, 여행, 캠핑,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 Classy Style Bottle의 구성
- * 더블 카트리지가
- * 클래식 스타일 캡은 상/하의 특별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정수기 물병

Jacob Choi 최 제이콥 T.(310)598-0746
GOLF PROFESSIONAL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부모사랑
카탈리나 섬 / 엔세나다(멕시코)
바하 멕시코 크루즈 Carnival

5월 \$290

~ 모든 비용 포함 (항만세/부두세/경부세 등)
~ 기항지 선박관광 및 일대 탐 답

DATE	DAY	PORT	ARRIVE	DEPART
1/22	월	롱비치 (LA)		5:30 PM
1/23	화	카타리나 섬	7:30 AM	4:30 PM
1/24	수	엔세나다 (멕시코)	8:00 AM	6:00 PM
1/25	목	전일 항해		
1/26	금	롱비치 (LA)	7:00 AM	

www.prttour.com
213. 739. 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사랑처럼 꿈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꿈은 우리를 영원한 청춘이 되게 만듭니다. 꿈은 우리를 젊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꿈꾸게 하십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이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꿈은 나이를 초월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어린이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꿈을 꾸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젊은 노인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아무리 노인이라도 꿈을 꾸는다면 그는 젊은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푸른 청년이십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좌절된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꿈이 좌절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좌절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좌절된 꿈을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날개가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다시 꾸게 하심으로 부러진 날개를 치유해 주십니다. 연약해진 날개에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비상할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꿈은 비상할 수 있는 날개와 같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때 비전을 갖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보게 됩니다. 높이 오를수록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꿈은 비상하는 능력입니다. 평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위엣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꿈을 앞을 내다보게 만들어 줍니다. 꿈을 소망 갖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사기를 원하노라"(롬 15:13). 소망을 갖고 있는 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냅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 냅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박한 마음입니다. 꿈을 성취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꿈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기도, 애절한 기도, 목숨을 내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목숨을 내건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위기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고통이 우리를 더욱 놀라운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제게 영감을 주는 화가 가운데 하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지스 할머니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이십니다. 그녀는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 농장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76세가 되던 해, 평소 읽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도무지 실을 자수바늘 구멍에 맞게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늘을 내려놓고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게 이미 늦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마워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이거든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 말이예요"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수오서재, 256쪽)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지스 할머니는 76세부터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을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절박함이 초조함은 아닙니다. 절박함은 간절함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성취하기 위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미소를 보내십니다.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교직 역시 소명의식 없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좋은 교사가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다. 아니, 사실은 '좋은 교사'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한 것 같다. 대체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일까? 어떻게 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장소나 상황, 전하려는 내용에 관계없이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은 크게 영성, 성품, 전문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육과 관련하여 주일학교 교사에게는 영성을, 학교 교사에게는 성품을 강조해왔다. 학교에서 교과목을 가르치든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든, 교사라면 누구나 맨 먼저 짚어봐



제이슨 송 교장
새연합초중고등학교

할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그 두 가지에 주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림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르치는' 일은 결코 '믿음'과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성과 성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교육과 교사는- 그 현장이 학교이든 교회이든 간에- 학습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고 마는 경우를 수없이 목도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실하고 착한 교사 ≠ 좋은 교사'라는 이야기다. 내가 말하는 좋은 교사란 피교육자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머릿속에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열매(지·정·의)의 성장과 성숙을 맺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교사직은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영역이다. 한국교회(또 이민교회)는 지금까지 교육 영역에서 이 점을 간과해 왔다.

이번 기고를 통해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되찾고 되살려 내는 출발점도 바로 여기서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직분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전문성의 영역에서도 준비되고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가르치는 장소와 내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열매를 맺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미국 남침례회의 다문화 선교 정책

필자가 속한 미국 남침례회(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는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며 선교지향적인 교단이다. 특히 남침례회는 약 1,000명의 한인 선교사들을 아시아 지역과 기타 지역에 파송했다고 전하고 있다. 남침례회의 북미선교부는 영어권을 포함하여 다문화 교회 개척자와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등을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다문화 사역의 성경적 근거는 바로 마태복음 28:18-20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른다.

다문화, 다민족 교회 개척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교학 이론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동형 집단 원리이다. 동형 집단 원리는 같은 언어나 문화 등 동일한 요소들로 인해 그 집단이 형성된다고 보며, 같은 문화와 언어 그리고 같은 민족의 배경을 지닌 회중들이 모일 때가 다른 회중들이 모일 때보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다 이해와 비전의 공유 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 잘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주의는 동형 집단 원리와는 상반된 견해이다. 다문화주의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오히려 교회의 회중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어우러질 때 더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즉,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어우러지게 되면 그 그룹은 더욱 관계가 강화되고, 다양한

문화 요소들에 의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더 잘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남침례회는 각 종족과 언어별로 독립적인 교회를 구성하는 소수민족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형 집단 원리에 입각해 다문화 사역, 다문화 선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소수민족들을 위한 사역은 소수민족 교회 개척 전략, 소수민족 교회성장 발전 전략, 소수민족 목회지도력 발전 전략, 소수민족 연계 전략 그리고 끝으로 소수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전략 등으로 나뉘인다.

성경은 분명 복음의 대상이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계획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충성을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로

[서평] 종교개혁과 예배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이며, 예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예배란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저자는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의 중심 주제가 '예배의 개혁'이었다고 전제하며, 몇몇 종교개혁가들의 예배에 대한 논문 및 저서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저자가 선별한 인물은 마르틴 루터, 츠빙글리, 마틴 부처, 존 칼빈 등이며,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에 대한 이해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고민하며 적용하고 있는 북미주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예배 개혁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예배가 '성직자 주도 예배'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성례를 행하는 사제의 예배 행위 자체를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18쪽)'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보는 예배'의 진행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물론, 집례하는 사제조차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됐다. 즉 예배를 하지만 아무런 이해도 없이 예배하였다.

수많은 예전들이 있고 성찬을 미사 때마다 시행하였지만,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신학적 이해를 따라 성도들의 참여가 제한된 예배를 하였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예배는 성도들의 이해와 참여가 힘든 예배였기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예배의 개혁이 필요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의 초점은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worship seeking understanding)'였다(19쪽).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예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방식으로 진행된 예배였고, 이런 이해 없는 예배를 통해 성경에서 벗어난 예배와 신앙생활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가들의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는 예배에 있어 '규정적 원리'를 따른 예배를 주장하였다(19쪽).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는 것과 예배 순서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예배, 종교개혁가들에게 배우다
문화량
CLC | 200쪽

성경을 따라 예배의 기본 원리와 요소 등을 파악하고 성경을 따라 예배하려는 원칙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이다.

이런 성경적 원리를 따라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하고자 한 예배의 요소들은 성찬, 세례, 기도, 찬송 등이다. 물론 종교개혁가들은 예배에서 말씀의 예전을 강조하였다.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는 이전에 라틴어에서 이제서 모국어로 설교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회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였다.

저자는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성경적인 예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북미주 개혁교회의 예배개혁'을 통해 제시한다. 북미주 개혁교회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을 단순히 답습하지 않고 그들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문화 가운데 적용하여, 그 접점을 찾아 예배하려고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 요소는 성찬, 세례, 기도, 찬양이며, 그 중에서도 성찬과 세례에 집중되어 있다. 예배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왜 종교개혁가들은 성찬과 세례에 집중했을까? 그것은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성례관'과 관계가 있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의 7성례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 '구원'의 방편으로 인식

되었다. 이런 성례관-구원관으로 인해 중세 로마가톨릭교회 예배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 이해가 결여된 예배 참여는 예배의 요소들에 미신적인 힘을 부여하였다.

결국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의 요소들을 개혁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은 외적인 표지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정의 말씀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에 강조를 둔다.

종교개혁가들은 예배 개혁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를 두었다. 그래서 저자가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 요소 가운데 말씀, 설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다른 요소들에 대한 개혁은 분명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개혁은 단순히 몇몇 요소들에 대한 개혁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예배'를 강조했다(19쪽). 그들의 예배 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성례와 기도의 바른 이해와 시행이었다. 예배 개혁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세례, 기도'를 개혁한 것이다. 즉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개혁하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였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의 예배 이해와 예배 개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른 이해를 통한 예배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며, 믿음을 강화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임용석
*본 서평은 신학서적중고장터의 독서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원: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성육신과 부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라

로완 윌리엄스의 21개 설교 모음



삶을 선택하라
로완 윌리엄스
민경찬, 손승우 역
비아 | 256쪽

성육신이 신비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필요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닐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쓴 <닥터 지바고>에서 빌려온 문장들은 독자들을 '전율'시킵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소설 속 한 인물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복음서에 담겨 있다(64쪽)'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이 곧 '로마의 종말'이라 말합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로마, 모든 존재를 확립 화시키는 전체주의의 로마. 그 로마가 종말을 고한 것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상'을 제시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저자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독자들을 인도합니다. '빛 속으로'라는 설교에서 빈 무덤, 즉 '열린 문'처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세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세계(151쪽)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뉘퓌수를 뽀갠가로 한 대 맞은 듯한 평화를 느낍니다. 무덤이 비었기에 부활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즉 무덤은 무덤이지요.

그런데 '문'이라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찬란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니요. 이 책을 읽고 있으니 무덤에 피어난 화려한 꽃 같고, 쓰레기 더미에서 잘 자라난 호박덩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 말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 죽은 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악인들을 고발(156쪽)이라는 신화적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설만 해도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 돌아오거나 꿈에 나오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지요. 예수는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폭력이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잊혀서는 안 된다고(157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왜 로완 윌리엄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속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정현욱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활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세서날-탈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4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지급

송금 송금·환전 지급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2018 NEW WORD

말씀카드

전면디자인 5가지와 한영으로 된 성구 350구절의 예쁜 말씀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EVENT 20% OFF

12월 6일 까지 주문고객!!

150개 ~~\$150~~ \$120
 300개 ~~\$250~~ \$200
 500개 ~~\$350~~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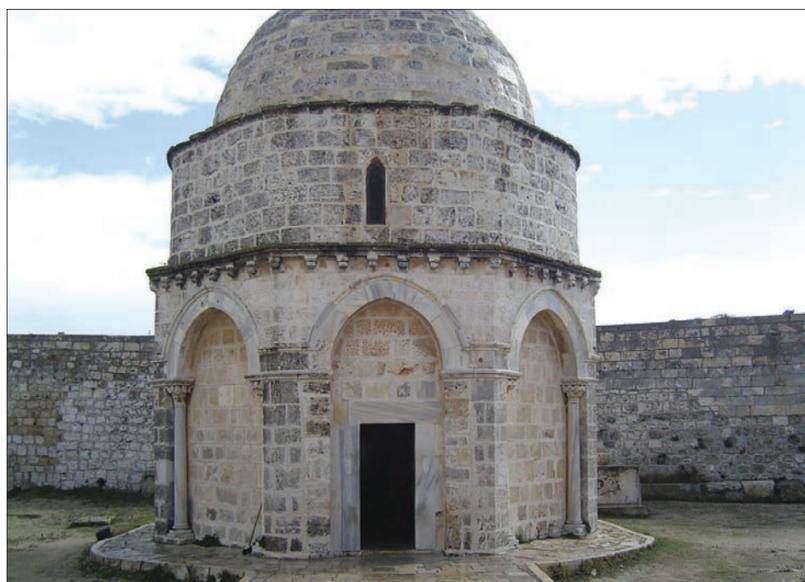
A형 B형 C형 D형 E형 F형

A-F 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뒷면에 한영성경구절 앞면에 교회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 junimmedia@gmail.com



승천교회의 간판



승천 돔의 현재 모습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58)

“가신 대로 오시리라” - 승천 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진 기념 장소

AD 387년 어느 날 로마의 귀족 부인 포메니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감람산 정상 부근의 한 바위를 찾았다. 바위 위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여인은 이 발자국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발자국이라 생각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500여 성도가 지켜 보는데서 마지막으로 밟았던 발자국으로 이해하였다. 그녀는 392년 이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은 기도처는 614년 페르시아의 침공 때 파괴되고 670년 경에 다시 세워졌으나 1009년 아랍 무슬림 술탄 엘 하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후에 1152년 십자군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8각형의 외벽을 가진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주님의 승천을 생각하여 기념탑에 지붕을 만들지 않았다. 승천교회(Chapel of the Ascension)는 8각형으로 아래 건물은 세우고 8방형 모두 아치형의 문으로 만들었다.

역사의 주인이 바뀐 후 1187년 아랍의 살라딘 장군은 이 건물을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정을 막고 1198년 8각형의 건물 천정에 무슬림 식으로 돔을 만들었다. 이곳의 기념탑(돔)은 모스크의 경내로 들어가서 무슬림들에 의하여 관리가 되어졌다. 무슬림들은 이 기념 돔의 8각면의 아치형 문을 모두 막고, 지붕을 만들어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는 불순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승천 돔을 방문하

면 지붕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맹목적인 신앙과 승천의 의미

중세와 십자군 시대에는 열성 성도들에 의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밭을 딛고 서 있었던 바위의 일부가 잘려져 가기도 했다. 이 바위의 일부는 유럽에서 황금과 교환되기도 했다 한다. 필자가 몇 년 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어떤 유럽 사람이 땅치로 이 바위의 일부를 캐다가 들켜서 황금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다. 성지의 많은 모습들이 잘못된 신앙과 교리로 우상화되어 가는 모습에 아쉬움이 많이 있다.

예수님의 승천은 결단코 세속적인 미래의 환상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 신앙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고 본다. 장소나 그곳의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셨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모

습을 보여주셨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67년 6월 6일 전쟁 후 감람산 지역은 이스라엘의 직접 통치에 들어가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들이 개방되면서 활발한 성지순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성지의 기념교회들이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에 의해 정비가 되어지는데 승천 돔은 아직도 무슬림의 소유이며 모스크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도 이슬람의 소유로 남아 있으며 이곳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

언제든지 우리들은 이곳을 방문해 성경을 읽고 천국을 소망하는 찬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송을 부른다. 그러나 사실 정식으로 여기서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은 예수님 부활 후 40일째 되는 승천기념일뿐이다.

러시아 정교회(Russian Ascension Convent)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1870-1887년에 기념교회를 설립하였지만 순례객들은 여전히 승천 돔을 승천 장소로 알고 찾아가고 있다. 러시아 승천교회에는 64m 정도 되는 종탑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상징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종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예루살렘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종탑에서 울려 퍼진 것이었다.

승천 돔 입구에 비바람으로 삭아진 푼밭에서 승천 장소임을 확인하고 모스크의 경내로 들어가면 넓은 공지에 둥근 탑 같은 건물이 있고 이 안에 발자국 바위가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기억한다. 막16:19, 눅24:50-51, 행1:9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신 일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며 재림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능력에 힘입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었다. 우리는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가를 한 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상한 구름이 뜨면 행여나 주님이 오시는가 하여 필자는 여러분에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연락드리겠다. 이러한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땅 끝 증인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계속)



승천 돔 안에 있는 바위



승천 돔의 내부 모습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2017년 겨울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 길)
알, (학문의 길)
살,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수시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치유와 회복이 있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치유예배

Healing & Happiness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나눔과 섬김의 교회

SHARING & SERVING CHURCH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세기총 황의춘 회장 “한반도 위기 극복 기도에 달려 있어”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 실천운동 펼쳐야”

2018년 무술년을 맞아 각 기관과 단체들이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해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본지는 현재 세계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자 뉴저지 트랜톤장로교회 담임 황의춘 목사의 인터뷰를 신는다. 황의춘 목사는 이민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론과 연구에서만 그치지 말고 실천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황 목사는 2017년 6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교사와 한인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목사는 “임기 1년은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들 위주로 한인교회가 형성돼 있는 미주와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제3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는 복음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고독하고 어려운 면도 있는 만큼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차로 세기총과 더불어 특별 방문을 통해 지역마다 네트워크를 만들자 한다”며 “남미와 유럽은 일정이 벌써 나왔고,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주 한인교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4,500여 곳이 있는데, 교포 교회들이 제3세계 교회들과 적어도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교회에서는 10년 전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제3세계로 나가 영어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해 단기간 내 영어에 친숙해지고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전도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교회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는 같다. 저는 현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범죄를 저질러 위기에 있다고 본다”며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목사는 “대표회장으로 있는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이를 회개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라며 “창세기 속 바벨탑을 지금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세기총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선도하고, 앞으로 회개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빛이 아니라 현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다음은 황 목사와의 신년 인터뷰 전문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지난 한 해를 보냈다.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 이후 한국교회에서 특별한 변화의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민교회 또한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이후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던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자세 및 변화를 평가한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은 항상 암흑기에 일어났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영적인 암흑기에 일어난 것이고 중세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였다. 때문에 당시에 종교개혁은 의미가 있었고 당시로서도 필요했고 신선한 것이었다. 참 신앙으로 귀환하는 운동이었다. 개혁신앙이 국가를 깨우기 시작했고 민족을 깨우기 시작했고 죽은 믿음을 깨웠다.

그러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도 새 영, 새 노래, 새 생명, 새 힘, 새 포도주 등 늘 새로운 것이 강조된다. 지나고 나면 다 옛 것이 된다.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개혁적 신이다.

이 개혁을 역사 속에 일회성으로 묻어 놓은 것이 문제라고 본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창조성과 생산성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 생명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개혁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이 개혁적인 신앙을 역사 속에 묻어 두는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한국교회로 적용시킨다면 6.25 동란 이후 눌러있던 신앙이 각성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한 신앙으로 사모하기 시작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다. 한국교회는 초기에는 이 부흥을 감당하지 못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보다 은혜를 먼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

저 받았다. 산에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목사가 그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감당 못해서 성도들이 몰려간 곳이 여의도순복음교회였다. 당시에 은혜 받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역장만 해도 목사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에는 조용기 목사의 리더십과 신앙 열정도 있지만 이런 한국교회의 영적 배경도 큰 요인이 됐다.

계속된 부흥 운동에 목회자들도 깨어나게 됐고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 집회가 기폭제가 됐다. 100만 명 신앙집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에 세계 교회가 다 놀랐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만방에 알려준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한국이 부흥되니까 국가에도 축복을 주셨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일념도 한 몫을 했지만 보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니 축복을 주셨고 그것 또한 박 대통령의 경제 개발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변혁과 문화가 함께 뻗어 갔다. 두 바퀴라고 할 수 있다. 영적 부흥과 경제적 성장은 대치되는 개념이면서도 두 바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혹자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축복의 때 이미 한국교회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로 한국교회가 올라갔다.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기 시작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교회가 이런 교권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기관들도 그랬다. 교회는 개혁으로 탄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지만 참 신앙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꽃을 피워서 다른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됐다.

지금은 회개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할 때다. 스스로 회개하며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계란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깨면 음식이 된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와 같다. 나를 스스로 깨뜨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 가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부서뜨리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한국교회가 회개 운동이 정말 일어나야 한다.

또 한국교회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실천을 해야 하는데 연구만 했다. 핵심 키워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신앙문제는 연구로만 그치면 안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한인교회들, 특히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교회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민교회도 목사와 평신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고 순수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안 무서워 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민교회의 상황을 보자면 너무 세속주의에 앞서고 있다. 세속주의는 물량주의, 맘모니즘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교회가 커야 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지 물량주의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한국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민교회의 상황을 보자면 초기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왔다. 왜 왔는가. 모두가 불안정하던 때였고 모두가 가난하던 때다. 모두가 알지 못해서 단순하던 때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까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 외롭고 눈물나는 때 하나님 생각이 간절하게 된다.

지금은 이민초기보다 안정돼 있다. 돈이 없어도 살아갈 여유가 생겼다. 돈 없어도 살아가는 노후가 생긴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 없어도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동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 중세 암흑기 인간 문화가 절정 이던 시기에 하나님을 상실하던 모습과 같다. 이것이 지속되면 암흑기가 온다. 삶의 요령과 방법이 생겨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문제가 곧 이민교회의 문제다.

또 목사가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다. 언제 존경을 받는다. 바로 세속화를 떠날 때 존경받는다. 현재 많은 목사가 성도들보다 더 세속화 되려고 달음박질하는 것 같다. 세상적인 발상을 버려야 한다. 신앙의 표상이 될 때에만 존경의 대상이 된다. 신앙보다는 양적인 숫자에 초점이 있지는 않은지, 힘든 이민교회 생활 중 너무 세속화된 시각이 되어버린 모습은 없는지 목회자들이 돌아봤으면 한다. 순수신앙으로 돌아갈 때 존경이 올 것이다.

-세계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세계에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흠어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근본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한인교회를 세계 각지에 퍼지게 하신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제사장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한다. 자기는 사업 때문에, 교육 때문에 해외에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제사장의 나라로 흠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민족성이 있는데 도전정신이 강하다. 어떤 민족보다 도전성이 강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적응을 잘 하고 살 수 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처럼 인기가 좋은 선교사들은 없다. 제 3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 선교사들에게는 '돈이나 놓고 가세요'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한인 선교사들은 돈이 없는 줄도 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과 도전정신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 외국 선교사들은 부활절 등 선교의 제철에 휴가를 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 한국 선교사들은 휴가를 가라고 해도 안 간다. 하나님이 이런 특성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로 또 복음전파의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믿는다.

-세계기독교총연합회를 오래 섬겼는데, 세계에 흠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연합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바로 세기종이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또 미주만 해도 각 지역별로 한인교회들의 관심사와 이슈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온 세계 한인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들이 한 주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선교다. 그것 빼고는 한 주제가 될 수 없다. 그 주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네트워크다. 온 세계 교회를 네트워크로 묶는 일을 세기종이 하고 있다.

선교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쓸데없이 시행착오 등의 낭비를 하게 되고 쓸데없는 시기 질투로 인한 경계를 하게 된다. 네트워크가 안되면 비효율적 선교가 일어난다.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실패한 요인은 무엇인가를 서로 연합해서 나누어 한다. 함께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세기종의 목적이 있다. 세기종은 한국과 미국, 일본만 모이던 것이 이번에 15개국까지 참석해 총 18개국이 됐다.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교류도 시작되는 것이니 최대한 아름다운 협력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한국에서 총회를 여는데 25개 국가가 초청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은 현재 북핵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한인교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김정은 정권의 북핵 위협에 대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정확한 시각은 무엇인가.

한반도는 확실히 기로에서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는데 현상만 보는 것에는 착시가 많이 일어난다. 현상을 보면 안 되고 실상을 봐야 하는 것이다. 대화하자, 화해하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실상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보였던 위장된 모습이나 위선된 모습에 우리는 많은 훈련이 돼 있다. 한반도의 실상을 간단히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우리의 이념대결이라 할 수 있다. 실상은 좌우의 이념 대결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여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패권주의를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가 평화의 노래를 선불리 불러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를 보자면, 러시아는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버렸고 외형적 구조로만 현재 남아 있다. 중국도 사실은 이 이론을 버렸고 정치 이론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공산주의 원리가 정치 때문에 저 위에만 남았지 밑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북한은 위에도 밑에도 공산당 원리가 통한다. 그런데 이것

이 아직 미완성이다. 한국을 적화시켜야 이론이 완성되는데 아직 적화가 안 됐다. 적화통일이 되면 이론이 완성됐기에 나중에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미완성의 공산주의는 완벽한 독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결과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있고 현상만을 본다. 지금 남북이 대화를 한다고, 선수단을 평창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항상 하던 방법이다. 바로 이때가 더 국가안보적으로 위험한 때다. 항상 불리할 때 대화로 나왔던 것이 지난 20년간 북한이 보였던 모습이다.

현 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한국을 위한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국운을 다하게 하신다면 계속 그 길로 망하게 돼 있다. 바로 망하게 돼 있다. 현 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니스웨성을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눈물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온 한국교회가 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가능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우리를 멸망에 두지 않으시도록 해야 한다. 멸망도 흥왕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혹시 우리를 향한 진노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바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트렌튼장로교회 부임 35년차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동안 힘써 왔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목표하는 특별한 목회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해.”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근거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기 쉽다. 좀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자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감사도 나오고 믿음도 생긴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인식이 바르게 생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표어를 정했다.

지금까지 목회하며 줄곧 강조한 것이 믿음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야 한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니 우리가 이 진리를 매일 연구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가끔 한인교회 내에 덕스럽지 않은 다름 소식이 있는데 트렌튼장로교회는 그동안 내분 없이 리더십과 하나 되어 잘 성장해 온 교회 중 하나다. 특별히 교회를 원만하게 이끄신 비결이 있는가.

교회 내분이나 싸움보다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련은 있었다. 모든 교회와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진리의 교회는 어느 면에서 보면 이런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 없는 도전을 받으시며 사역하셨다.

굳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만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면 목사인척 하지 않고 신앙원리대로 하려 한다는 것이다.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고 꼭 막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기준이 없이 열어 두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저에게 잘 해 주는 성도들에게 나도 똑같이 특별히 가까이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 교회에 일손이 부족하면 직접 밭도 파는데 특별히 목회자가 못할 일에 대한 구분은 없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그렇다고 시험 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되도록 화목한 목회, 신앙적으로 부드러운 목회를 추구했던 것이 큰 분열이 없었던 원인인 것 같다.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부드럽게 권면하는 편이다.

-남은 담임 임기 동안 앞으로 트렌튼장로교회를 이끌어 갈 구상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좋은 후임자를 찾는 것이다. 어느덧 저는 은퇴해야 할 때를 맞았다. 제가 찾고자 하는 좋은 후임은 첫 번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좋은 크리스천이자 좋은 목사이기 전에 좋은 인격자여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역하는 복음적 사역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고 잘 섬기려는 종된 자세를 갖춘 사람을 찾고 있다. 성도들에게 감질하는 잘못된 목사가 많다.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목회자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보가 추천이 되면 당회에서 공천의 과정을 거쳐 전체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황의춘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트렌튼장로교회 전경

미주 제 66차 성경완독집회
2018년 1월 22일(월)~25일(목)

3박 4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 66권 완독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정희미 선교사

새해, 첫날 성경66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해

숙식 제공
집이 가까운 분은 집에서 왕래 가능

일시 2018년 1월 22일(월)~25일(목)

장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 909.983.0994 / Cell : 909.268.4279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부부 \$100

등록 1월 22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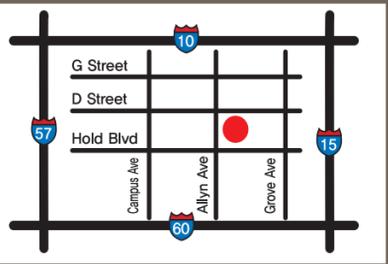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1월 22일(월) 오전 10:00

수료식 1월 25일(목) 오후 6:00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주최 : 말씀사랑운동미주요한선교단(대표:안성기) 장소 :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Tel:(909)983-0994

피로야 가라!

피로방지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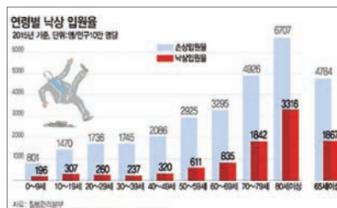
(Prevent Fatigue Mat)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로서 일하는 곳 바닥에 탄력적인 표면을 제공하여 서서 일하는 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현저하게 예방하고 피로로 인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게 해 드립니다.
 70%이상 피로 감소, 피로방지, 혈액순환, 하지정맥류 개선, 작업안전 증대, 미끄럼 방지, 충격흡수, 생산성증대, 노종자 보호, 관절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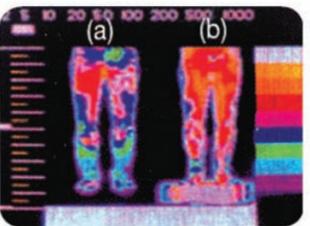
목사님!
 목회자
 특별한인 체택
편안하게 피로방지매트에서 설교하세요!!!

- 서서 설교하실 때 충격흡수를 시켜 관절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피로를 줄여드립니다.
- 바닥에 앉아 기도하실 때 **기도매트**로 좋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끄러지지 마세요!!!

- 미끄럼에 의한 골절과 상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다 아시죠?
- 미끄럼방지 매트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 침대 옆, 화장실, 주방, 거실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열영상선을 이용한 피로방지 매트 비교실험 (혈액 순환 정도와 근육 피로도를 비교한 그림)

- (a)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바닥의 경우
 청색과 녹색이 종아리에 몰려 분포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 원활하지 않은 근육활동과 혈액순환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b) 피로방지 매트를 설치 한 경우
 붉고 노란색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피로방지 매트의 독특한 인체공학적 설계의 탄력적 특성과 재질로 인하여 근육 및 혈액의 순환이 원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미국판매기념 특별세일

<p>E- MAT</p> <p>피로방지용 사이즈 3ft + 2ft \$123 +tax \$176 30% Off</p> <p>* 사이즈와 모양을 설치 장소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p>	<p>SAFE KOREA MAT</p> <p>세이프코리아매트 (Safe Korea Mat) 사이즈 80cm+40cm \$75 \$60 +tax</p>	<p>NEW SUPER SAFE MAT</p> <p>슈퍼세이프매트 (Super Safe Mat) 사이즈 92cm+42cm \$90 \$72 +tax</p>
	<p>SAFE MAT</p> <p>사이즈 80cm+40cm \$95 \$76 +tax</p>	<p>SUPER SAFE MAT</p> <p>사이즈 3ft + 2ft \$145 \$116 +tax</p>

약국, 식당 주방, 가정집, 일반 소매점, 웨일하우스, 메뉴팩처, 디자인 하우스 등 서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자동차 공장 등 산업시설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피로방지 매트(Prevent Fatigue Mat) 설치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